

## 중년의 죽음태도와 행복: 물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의 매개효과 검증\*

이 화 진

정 영 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와 행복 간의 관계를 물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이 매개하는 구조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물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을 포함한 경상도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년 489명을 대상으로 죽음태도(죽음회피와 죽음수용), 물질주의, 의미추구성향, 행복(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MOS 23.0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 분석에서는 죽음회피와 죽음수용은 행복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물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죽음을 회피하는 태도가 높을수록 물질의 중요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추구성향은 낮아 중년의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죽음을 수용할수록 물질에 부여하는 가치가 낮았고, 높은 의미추구성향을 가짐으로써 높은 행복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죽음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물질주의에 대한 가치관을 낮추고 의미추구성향을 높여 중년의 행복에 이르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죽음태도(죽음회피, 죽음수용), 물질주의, 의미추구성향, 행복(주관적 안녕감)

\* 본 연구는 BK 21 플러스 [고령사회 대비 웰에이징 행복심리디자이너 양성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F16HR31D1802].

† 교신저자 : 정영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E-mail: yschoong@pusan.ac.kr

한국은 1960년 대 이후 정부 주도 하에 국민 경제 성장과 과학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삶의 외적, 양적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불과 몇 십 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면서도 한국의 국민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28위로 하위권을 맴돈다(조선일보, 2011.01.01). 또한 자살률은 2003년 이후 14년째 1위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세계일보, 2017.07.16).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비해 한국인들은 삶이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오진탁, 2009; 2011; 한국일보, 2016.01.18).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한국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급속한 산업화와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 팽배해진 물질만능주의를 들 수 있다(김원식, 2011; 박진영, 최혜원, 서은국, 2012; Diener, Suh, Kim-Prieto, Biswas-Diener, & Tary, 2010). 한국사회는 심리내적 가치보다 ‘물질’이나 ‘경제적 성공’을 행복의 필요조건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고, 어떻게 하면 더 소유할 수 있을가에 집착하면서 ‘삶’만을 추구하고 강조한다(오진탁, 2011; Diener, et al., 2010). 부(富)의 축적이나 소유, 눈에 보이는 결과에 따라 성공 여부를 결정하고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공감, 연대, 행복 등과 같은 심리내적, 초월적 가치를 잃은 셈이다(Belk, 1984).

이제는 경제가 아닌 다른 행복의 요소들을 생각해 볼 때이다. 오래 전부터 종교, 철학, 문학 영역에서는 인간본연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강조하고 깨닫기 위해서 죽음을 다루며, 삶의 유한성 자각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해 왔

다(김명숙, 2014). 찰스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냉혈한 구두쇠였던 스크루지는 동업자인 말레의 유령에게 이끌려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게 되고 삶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그 후 나눔을 실천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한다(Charles Dickens, 1843/2017).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라는 유명한 라틴어는 중세 유럽의 탁발 수도회가 소중하게 여긴 설교 주제로,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성을 자각하고 죽음을 기억하며 충실한 삶을 살라는 메시지이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확실한 일인데도 나는 죽지 않는다는 무의식적 신념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다고 말하며 죽음에 대한 회피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추구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Martin Heidegger, 1927/2008). 또한 니체는 ‘죽음은 삶의 완성이라고 말하며, 죽음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고 이해할 때, 진정한 의미와 본질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김창현, 2013). 실존주의나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도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하는 죽음을 통해 자기실현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높아지고, 삶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왔다(남희선, 이영호, 2014; 문현공, 2016; 진영선, 김영경, 2011; Carstensen, 1998; Frank, 1959; Kübler-Ross, 1997; Wong, 2008; Wong, & Tomer, 2011).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에 최근 웰다잉(well-dying)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변미경, 현혜진, 박선정, 최은영, 2017; 오진탁, 2011; 정운경, 2015). 웰다잉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는 것이다(조원규, 2013). 즉,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유한한 삶과 자신의 한계를 수용

하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을 행하며 인간으로서 소중한 가치를 찾는 과정을 일컫는다(김명숙, 2014; 차미영, 2006). 한국죽음준비교육원 원장 이병찬(2011)은 웰다잉을 물질에 우선가치를 부여하기 보다는 내 소중한 가족을 보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이름 그대로 '잘 죽어가는 것'을 지향하는 삶이라고 하였다. 죽음에 대한 자각과 수용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삶을 충실히 잘 사는 것, 그것이 웰다잉인 것이다. 즉, 웰다잉은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죽음을 수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적인 성공이 아닌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임송자, 송선희, 2012; 정운경, 2015; Neuberger, 2004). 따라서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를 시작으로 웰다잉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지만, 삶이 불만족스러운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한편, 중년기는 가정 및 사회에서의 역할 변화뿐 아니라 신체적 능력이나 건강의 감퇴를 경험하면서, 인생의 전환기로 간주된다(Levinson, 1986). 부모나 주변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도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죽음을 '자신의 일'로 여기기 시작한다(장휘숙, 2008; 정운경, 2015). 자신의 일로 다가온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하는가에 따라 남은 생의 목적과 방식, 심리적 적응이 달라질 수 있다(김지현, 민경환, 2005; 이은경, 2002; 한미정, 2002; Carstensen, 1998). 이는 연장된 노년기를 살아야 하는 예비 노년세대인 중년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 중년기는 부모의 봉양, 자녀들의 돌봄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감이 높은 시기이다(정영미, 2013). 이러한 경제적 부담감으

로 인해 중년기는 다른 연령에 비해 물질주의 가치관이 강하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Morgan, & Robinson, 2013).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라 불리는 현재 한국 중년들은 급속한 경제성장의 주역들로, 경제적 성공이나 물질적 소유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중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의 기초자료로서, 중년들의 죽음태도와 물질주의, 의미추구성향, 행복의 관계를 확인하여, 물질주의 가치관을 낮추고 의미추구성향을 높일 수 있는 심리학적 변인으로서 긍정적이고 성숙한 죽음태도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 죽음태도와 행복

죽음에 대한 태도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여긴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장휘숙, 최영임, 2008; Collett & Lester, 1969; Feifel, 1990; Hoelster, 1979; Wong, et al., 1994). 본 연구에서는 2가지 죽음태도 죽음회피와 죽음수용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죽음회피와 죽음수용은 죽음태도 척도를 개발한 Wong 등(1994)의 연구에서부터 서로 구분되는 하위 태도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죽음회피와 죽음수용과 관련된 변인들도 다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죽음회피는 주로 우울과 연관되는 반면, 죽음수용은 자아통합감, 심리적 자원과는 정적 관계를 보임으로써 기능적으로 서로 상이한 개념임을 시사한다(김지현, 민경환, 2005; 이운영, 2008; 이화진, 정영숙, 2014; Wong, et al., 1994).

먼저, 죽음회피는 죽음으로부터 야기되는 불안을 감소시키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죽음

과 관련된 생각이나 언급을 일체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의미한다(Wong, et al., 1994). 의식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죽음을 직면하는 것을 피하는 태도이다. 한편, 죽음회피와 대조되는 태도로는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인데, 죽음수용에 대해 Klug와 Sinha(1987)는 비교적 덤덤하게 삶의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죽음 수용이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지적 자각과 그러한 인식에 대한 긍정적, 중립적인 정서 반응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Wong 등(1994)은 죽음에 대한 수용을 3가지로 설명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립적 수용, 접근적 수용, 탈출적 수용이 포함된다. 중립적 수용(neutral acceptance)은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죽음을 삶의 최종 단계로, 삶에서 변할 수 없는 하나의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접근적 수용(acceptance)은 사후세계의 존재를 확신하고 행복한 사후 세계를 기대하며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후의 행복을 믿는 것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부여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탈출적 수용(escape acceptance)은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도피처로서 죽음을 기대하고 수용한다. 불행한 삶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이다. 접근적 수용은 내세를 믿고 사후세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므로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탈출적 수용은 힘든 삶에 대한 도피처로써 죽음을 수용하므로 긍정적인 수용태도로 간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죽음수용은 Wong 등(1994)이 제시한 중립

적 수용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김지현, 민경환, 2005; 정영숙, 이화진, 2014; Spilka, Stout, Minton, & Sizemore. 1977; Wong, et al., 1994). 행복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로 구성되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죽음태도와 행복의 관련성은 행복과 관련된 적응지표나 심리적 자원과의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덤덤하게 수용하는 태도는 자아통합감과 심리적 안녕감, 죽음대처유능감과 같은 심리적 자원 및 개인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현, 민경환, 2005; 정영숙, 이화진, 2014; 한미정, 2002; Fry, 2001; Wong, 2008). 또한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는 공격적인 행동을 줄어든게 만들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등 건강 행동을 증가시키며,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뿐 아니라 흡연율과 이혼율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Vail III, Juhl, Arndt, Vess, Routledge, Rutjens, 2012). 죽음에 대한 속고를 바탕으로 죽음을 수용할수록 사람들은 사회의 규범을 더 잘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이타심, 기부, 타인과의 평화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친사회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지선, 최인철, 2002; Gobodo-Madikizela, 2002) 한편, 죽음으로부터 야기되는 불안을 감소시키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죽음과 관련된 생각이나 언급을 일체 하지 않으려는 죽음회피 태도는 낮은 개인의 안녕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Wong, 2008). 선행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죽음태도가 행복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추론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 죽음태도와 물질주의

Christopher, Drummond, Jones, Marek, Therriault (2006)은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나 믿음을 더 많이 보인 사람들일수록 물질주의 가치관이 강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죽음에 접화된 사람들은 소비량이나 충동구매, 고급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Arndt, Jammie, Solomon, Kasser, & Sheldon, 2004; Mandel, & Heine, 1999; Mandel, & Smeesters, 2008). 이는 죽음으로부터 야기되는 공포를 방어하고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대처방식에 대한 이론인 공포관리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 TMT)의 죽음 현저성(mortality salience) 가설로 설명될 수 있다(Greenberg, Pyszczynski, & Solomon, 1986).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극단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선택이나 판단이 죽음으로부터 야기되는 공포를 회피하고 해소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설명된다(Greenberg, et al., 1986; Rindfleisch, Burroughs, & Wong, 2008). 죽음을 회피하는 태도는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의 획득, 부(富)의 축적과 같은 세속적인 것에 보다 높은 선호나 가치를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Belk, 1984; Greenberg, et al., 1986).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에 의거하여, 죽음태도는 물질주의 가치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 죽음태도와 의미추구성향

의미추구성향은 진정한 자기와 일치하는 미덕이 있는 삶을 살고자 지속적인 목표와 의미를 지향하는 경향성을 말한다(Peterson, Park, &

Seligman, 2005). 이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Seligman과 동료들(2005)이 제안한 행복추구성향(Orientations to happiness) 3가지 중 하나이다. Seligman과 동료들은 행복한 삶을 즐거운 삶, 의미가 있는 삶, 몰입하는 삶으로 구분하여, 즐거운 기분을 느끼면서 자신의 일에 열정적으로 몰입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Seligman, Rashid, & Parks, 2006).

철학과 문학, 실존주의 심리학에서 역설하듯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지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문현공, 2016; 변미경, 현혜진, 박선정, 최은영, 2017; 오진탁, 2011; 이지영, 이가옥, 2004; Frank, 1959). 이를 경험적으로 밝힌 연구에서는 죽음을 수용할수록 삶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죽음수용을 통해 이루어진 삶의 통찰과 의미 발견은 물질적 욕구의 경계를 넘어선 관계나 배려와 같은 이타적이고 정신적인 가치 추구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남희선, 이영호, 2014; 정미영, 2010; Crumbaugh, Wood, & Wood, 1980). 죽음태도와 의미추구성향 간 인과적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사생관이 삶의 의미 발견과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정미영(2010)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죽음에 대한 자각과 태도는 의미추구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해 볼 수 있다.

### 물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 및 행복

물질주의 가치와 욕구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많은 불안과 우울 증상을 호소하고, 더 자주

신체적 불편감을 보이면서 부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홍경화, 2014; Kasser, & Ryan, 1993, 1996, 2001, 2002; Sheldon, & Kasser, 2002). 물질주의는 공동체와의 유대감, 자아실현 욕구, 자존감, 자율성과 자유 의지, 친화력, 공감 능력과 같은 중요한 심리적 자원과도 부적절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진영 등, 2012; 홍기원, 김연우, 2015; Kasser, & Ryan, 1993; Tsang, Carpeter, Robert, & Carlisle, 2014).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259편의 논문을 메타 분석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별, 인종, 국가, 물질주의의 정의와 상관없이 물질주의는 일관되게 삶의 만족과 행복감을 저해시키는 강력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Dittmar, Bond, Hurst, & Kasser, 2014). 실제로 물질주의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경험을 더 적게 하고,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행복감이 저해되는 것으로 보인다(이민아, 송리라, 2014; Miller, 2009; Belk, 1984, 1985; Solberg, Diener, & Robins, 2004; Vohs, Mead, & Goode, 2008). 그 이유 중 하나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삶의 다양한 목표들 중에서 물질의 획득이나 소유를 가장 중시하면서, 행복에 중요한 다른 심리적, 초월적 가치나 욕구들을 경시하기 때문으로 제안된다(Belk, 1984, 1985; Christopher, Lasane, Troisi, & Park, 2007; Diener, & Oishi, 2000). 물질주의가 인간 본연의 궁극적인 가치와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심리적 불행이 초래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물질주의가 현세의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고 물질의 획득이나 소유를 우선시하면서 물질이외의 다른 중요한 심리적, 초월적 가치들을 경시하게 만든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때, 물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은 부적절한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Belk, 1984). 한편, 의미추구성향은 삶의 만족과 행복감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바, 의미추구성향은 행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황재원, 김계현, 2009; Henderson, Knight, & Richardson, 2014; Peterson,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가 의미추구성향에 영향을 주고, 이는 개인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 연구모형 설정 및 연구가설

지금까지 살펴본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죽음수용이 심리적 자원 및 개인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죽음회피는 낮은 안녕감과 관련 있다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죽음태도가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김지현, 민경환, 2005; 정영숙, 이화진, 2014; Fry, 2001; Wong, 2008). Arndt 등(2004)과 Christopher 등(2006)의 논의를 바탕으로 죽음태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물질주의가 매개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삶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이나 인정 즉, 죽음수용이 삶에서 보다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죽음에 대한 태도가 의미를 추구하는 경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Frankl, 1959). 다음으로, 물질주의는 낮은 행복감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들의 일관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물질주의가 행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여러 연구들(황재현 등, 2009; Henderson, et al., 2014; Peterson, et al., 2005)에서 의미추구성향은 삶의 만족과 행복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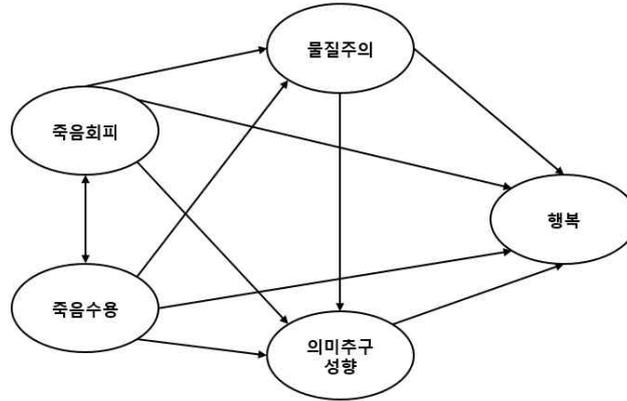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으로 밝혀졌다. 이에 의거하여 의미추구성향은 행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연구 결과와 이론적 주장, 가설을 통해 죽음태도와 행복 간의 관계를 물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이 매개하는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태도는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죽음태도는 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죽음태도는 의미추구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물질주의는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의미추구성향은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섯째, 물질주의, 의미추구성향은 죽음태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을 포함한 경상도에 거주하고

있는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중년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가자 모집 시스템(SONA)을 이용하여 부산 소재의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들을 통해 학생들의 부모나 가까운 중년 친척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지에서 미응답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하고 최종 48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중년들의 평균 연령은 52.0세( $SD=4.9$ )였고, 남자 181명(37.0%)과 여자 308명(63.0%)이었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271명(55.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졸(154명, 31.5%), 대학원졸(51명, 10.4%), 중졸(6명, 1.2%), 초졸(4명, 0.8%) 순서였다. 종교는 불교가 188명(38.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무교(172명, 35.2%), 기독교(88명, 18.0%), 천주교(31명, 6.3%), 원불교 등을 포함한 기타 종교(7명, 1.4%) 순이었다.

### 측정도구

#### 죽음태도

죽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Wong

등(1994)이 개발한 다차원 죽음태도 척도를 이 운영(2008)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23문항으로, 죽음에 대한 5가지 태도(죽음공포, 죽음회피, 탈출적 수용, 접근적 수용, 중립적 수용)를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죽음으로 인해 유발되는 불안이나 공포를 없애기 위해 죽음을 회피하려는 태도인 '죽음회피'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자 최종 단계로서 죽음을 인식하고 비교적 담담하게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중립적 수용을 '죽음수용'으로 간주하여 사용하였다. 죽음회피를 측정하는 문항은 4개로, "나는 죽음에 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등과 같은 문항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중립적 수용을 측정하는 문항은 3개로,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다"가 문항의 대표적인 예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자료에서 죽음 태도 문항의 Cronbach  $\alpha$ 는 모두 .83이었다.

### 물질주의

현세적 소유를 중시하면서 돈의 획득과 같은 물질적인 목표를 보다 중요하게 추구하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Richins와 Dawson(1992)이 개발하고 유지혜(2017)가 타당화한 물질주의 척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가지의 하위 요인을 포함한다. 3가지 하위 요인은 물질의 획득을 성공의 지표로 삼는 '성공추구 물질주의', 물질의 획득을 삶의 중심에 두는 '물질주의 중심성', 물질을 획득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행복추구 물질주의'이다. 물질의 획득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성공추구 물질주의를 측정하는 문항은 5개이며,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등과 같은 문항이 포함

된다. 물질 획득 자체에 의미를 두고 물질주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7개이며,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역채점 문항)"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물질의 획득을 통해 행복을 경험하는 행복추구 물질주의는 5개 문항으로 측정되며, "더 비싸고 좋은 물건을 소유한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역채점 문항)" 등과 같은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들은 5점 리커트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물질주의적 가치관이나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자료에서 사용된 물질주의 문항들의 Cronbach  $\alpha$ 는 .83이었다.

### 의미추구성향

의미추구성향을 평정하기 위해 Peterson, Park, Seligman(2005)가 개발하고, 황재원과 김계현(2009)이 변안한 행복추구성향 척도 중 의미추구성향 문항을 사용하였다. 행복추구성향 척도는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가지 행복추구성향(즐거움추구성향, 의미추구성향, 몰입추구성향)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추구성향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의미추구성향을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이고 그 큰 그림에 어떻게 나를 맞춰야 할지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들은 5점 리커트로 측정되며, 의미추구성향 문항의 Cronbach  $\alpha$ 는 .78이었다.

### 삶의 만족도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는 척도로서 Diener, Emmons, Larsen, Griffin(1985)이 개발하고, 조명환과 차경호(1998)가 변안한 삶의 만

측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들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 삶의 만족도를 반영하는 문항으로는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등이 있다. 삶의 만족도 문항의 Cronbach  $\alpha$ 는 .90이었다.

###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는 서은국, 구제선, 이동귀, 정태연, 최인철(2010)이 한국인의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 척도로 제시한 긍정정서(즐거움, 행복함, 편안함)와 부정정서(짜증, 부정적 기분, 무기력함)가 각각 3가지씩 포함된다. 현재를 포함한 지난 1주일 동안의 정서 상태를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문항의 Cronbach  $\alpha$ 는 .84이었다.

### 분석방법

자료 분석에 앞서, Diener(1984)의 연구를 참고하여 행복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우선 각 측정치의 문항수와 분포 차이를 없애기 위해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측정치를 각각 표준점수(Z-score)로 환산한 다음 ‘삶의 만족도+긍정정서-부정정서’로 계산하여 행복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해 통계 프로그램 AMOS 23.0을 사용하였고, 간접효과 역시 AMOS 23.0의 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적합도 지수들인  $\chi^2$ , NC(Normed Chi-square), CFI(Comparative Fit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모형의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NC 값이 2.0~3.0 범위에 포함되고 CFI가 .90이상이면 적절한 모델이라고 간주한다(문수백, 2015; Bollen, 1989). 또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가 .05보다 같거나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그리고 .10보다 작으면 보통수준으로 해석하고, 평균잔차공분산을 나타내는 SRMR이 .05이하이면 양호한 모델로 평가하고 .10 이하이면 대체로 양호한 모델로 평가된다(문수백, 2015).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그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 결 과

### 모형분석을 위한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죽음태도(죽음회피, 죽음수용), 물질주의, 의미추구성향 및 행복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척도 및 왜도, 그리고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01~.40으로 각각 정적,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예측 변인간 다중공선성을 우려하여, 행복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변인들의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해 본 결과, 1.01~1.06까지 분포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할 만한 수준(10 이상)이 아닌 것으로 시사되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죽음회피는 물질주의에 정적 상관을, 행복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죽음회피와 의미추구성향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죽음수용은 물질주의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의미추구성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표 1. 측정변인 간 상관, 평균값, 표준편차, 왜도, 첨도 (N=489)

	1-1	1-2	2	3	4
1. 죽음태도					
1-1. 죽음회피					
1-2. 죽음수용	-.12*				
2. 물질주의	.20**	-.21**			
3. 의미추구성향	-.02	.20**	-.25**		
4. 행복	-.15**	.09	-.33**	.32**	
평균	9.90	11.80	49.71	19.83	.00
표준편차	3.20	2.08	7.93	3.29	1.00
왜도	.21	-.97	.03	.14	-.26
첨도	-.14	2.93	.17	.47	-.16

\* $p < .05$ , \*\* $p < .01$

(죽음회피 총합 20점, 죽음수용 총합 15점)

을 보였고, 행복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물질주의는 의미추구성향과 행복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행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죽음회피와 물질주의와는 부적상관을 보였고 의미추구성향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죽음을 회피할수록, 물질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강할수록, 의미를 추구하려는 성향이 낮을수록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각 측정변인들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하였다. 왜도는 자료가 좌우대칭을 잘 이루어 정규성이 유지되는지를 보는 것으로서, 절대값이 3.0보다 크면 극단적이라고 간주하고, 첨도는 점수 비율이 정규분포 곡선에서 분포 곡선의 중간이나 끝부분에 몰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절대값이 10.0보다 클 때 문제가 있다고 본다(배병렬, 2009). 본 연구에서 변인

들의 왜도는 -.97~.21의 범위이며, 첨도는 -.16~2.93의 범위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가정이 지지되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의 검증에 앞서,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적합도는  $\chi^2(125, N=489)=299.71, p < .001$ ; NC=2.40; CFI=.94, SRMR=.05, RMSEA=.05(90% 신뢰구간=.05-.06)으로,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측정변인들에 대한 해당 잠재변인의 요인 부하량은 표 3과 같으며, 표준화 요인 부하량의 값이 모두 .50보다 크기 때문에 측정변인

표 2. 측정모형 적합도

$\chi^2$	<i>df</i>	<i>p</i>	NC	CFI	SRMR	RMSEA
299.71	125	.000	2.40	.94	.05	.05

표 3. 각 측정변인의 비표준화/표준화 요인 부하량, 표준오차 (N=489)

측정변인	비표준화 요인 부하량 (회귀계수 $\beta$ )	표준화 요인 부하량 (회귀계수 $\beta$ )	S.E	C.R
<b>죽음회피</b>				
죽음회피 1	1.00	.80***		
죽음회피 2	1.06	.78***	.06	17.81
죽음회피 3	1.14	.87***	.06	19.42
죽음회피 4	.82	.62***	.06	13.74
<b>죽음 수용</b>				
죽음수용 1	1.00	.85***		
죽음수용 2	.97	.82***	.06	17.52
죽음수용 3	.93	.74***	.06	16.38
<b>물질주의</b>				
성공추구 물질주의	1.00	.77***		
삶의 중심 물질주의	.80	.56***	.08	10.55
행복추구 물질주의	.82	.77***	.06	12.70
<b>의미추구성향</b>				
의미추구 1	1.00	.63***		
의미추구 2	.80	.50***	.09	9.14
의미추구 3	1.10	.71***	.09	11.95
의미추구 4	1.02	.74***	.08	12.22
의미추구 5	.94	.62***	.09	10.86
의미추구 6	.81	.50***	.09	9.13
<b>행복</b>				
삶의 만족도	1.00	.84***		
정서	.74	.66***	.09	9.20

\*\*\*  $p < .001$

들이 해당하는 이론변인에 적절하게 대표된다  
는 해석이 가능하며, 18개의 측정변인으로 5  
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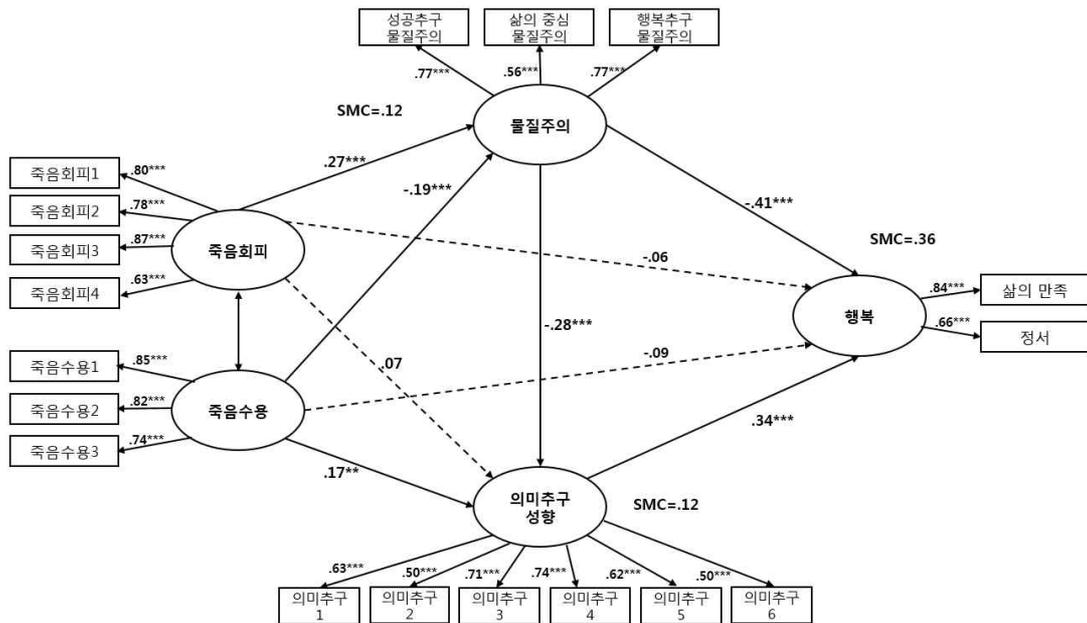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표 4  
에 제시하였다. 적합도 결과는  $\chi^2(125, N=489)$   
=299.71,  $p<.001$ ; NC=2.40; CFI=.94, SRMR=  
.05, RMSEA=.05(90% 신뢰구간=.05-.06)로 나타  
났다. 모든 적합지수들은 양호한 모델로 속하  
는 범위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구조모형이 자  
료에 적합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죽음회피와 죽음  
수용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연구  
가설 1은 지지되지 않았다. 죽음회피와 죽음  
수용 모두 물질주의와는 유의한 관련이 있었  
는데, 죽음회피는 물질주의와 정적으로 관련  
이 있었고 죽음수용과 물질주의는 부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이로써, 연구 가설 2는 지지되  
었다. 죽음회피는 의미추구성향과 유의한 관  
련성을 보이지 않았고, 죽음수용은 의미추구  
성향과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연구  
가설 3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물  
질주의는 행복과 유의한 부적인 관련성을 보

표 4. 구조모형 적합도

$\chi^2$	df	p	NC	CFI	SRMR	RMSEA
299.71	125	.000	2.40	.94	.05	.05



\*  $p<.05$ , \*\*  $p<.01$ , \*\*\*  $p<.001$ .

그림 2. 구조모형(N=489,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단, 점선은 경로가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표 5. 죽음태도와 행복과의 관계에서 물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의 이중 매개효과 검증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죽음회피 → 물질주의 → 의미추구성향 → 행복	-.06	-.11*	-.17*
죽음수용 → 물질주의 → 의미추구성향 → 행복	-.09	.15*	.07

\*  $p < .05$

이면서, 연구 가설 4가 지지됨이 확인되었다. 의미추구성향이 행복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5가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죽음태도와 행복과의 관계에서 물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의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죽음회피와 죽음수용 모두 물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을 거쳐 행복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결과 표 5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로써 연구가설 6은 지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은 내생변수가 그 내생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산출된 SMC에 따르면, 물질주의는 2가지 죽음태도에 의해 12%, 의미추구성향은 죽음태도와 물질주의에 의해 12%, 행복은 죽음태도와 물질주의 및 의미추구성향에 의해 36%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죽음회피와 죽음수용은 행복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물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죽음태도와 행복 간의 관계는 물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 논 의

한국은 정부 주도 하에 국민 경제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급속도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지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곧 ‘행복’이자 반드시 갖춰야 할 ‘필요조건’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물질적 풍요로움이 행복을 예측하지 않으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음에도 한국인들은 여전히 물질적 획득에 높은 가치를 두고 애쓰고 있다. 이는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원과 에너지가 비효율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셈이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삶의 유한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죽음을 수용해야 한다(Frankl, 1961). 웰다잉은 말 그대로 잘 죽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잘 사는 것’, 웰빙의 마지막이다. 웰다잉의 시작은 죽음에 대한 긍정적이고 성숙한 태도를 갖는 것이다. 고령사회를 맞이하며 노인들의 죽음태도와 자아통합,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적응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예비노년 세대인 중년들의 죽음태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중년기는 죽음을 현실적으로 직시하기 시작하고, 청년기와 노년기 중간 단계에서 경제적 요구나 압박도 높은 시기이다. 이에 중년들은 다른 연령에 비해 죽음공포나 불안이 높고, 물질주의 가치관이 강하다고 보고된다(Gesser, Wong, & Recker, 1988; Morgan, & Robinson,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년들의 죽음태도, 물질주의, 의미추구성향,

행복 간의 관계를 밝히고, 긍정적이고 성숙한 죽음태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죽음회피, 죽음수용 2가지 죽음태도 모두 행복과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죽음에 대한 태도가 죽음대처유능감이나 자아 통합감,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자원 및 적응에는 영향을 주지만 행복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죽음회피와 죽음수용 2가지 죽음태도는 물질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죽음회피는 물질주의와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고, 죽음수용은 물질주의와 부적인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로, 죽음회피는 죽음과 관련된 생각이나 언급을 일체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의미하고 이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자신의 유한성을 지각하고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포함된다(Wong, et al., 1994). 그렇다보니 죽음을 회피하는 태도는 '삶'과 '생존'에 초점을 두면서 현세의 세속적인 물질의 획득이나 소유를 중시하는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죽음을 겸허히 덤덤하게 받아들일수록 물질에 부여하는 가치나 중요도는 낮아진다. 죽음을 수용할수록 실존의 목적과 가치가 부각되면서 목적적이고 상위적인 수준의 개념과 태도를 지니게 되면서 물질주의 가치관이 약해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Ryff & Singer, 1998). 죽음수용은 의미추구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죽음수용은 의미추구성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가 삶을 대상화하면서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기 때문으로 여겨진다(Kübler-Ross, 1997). 죽음을 수용하면 제한된 시간 안에서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물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 두 변인 모두 행복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선행연구와 상응하는 결과이다(박선영, 권석만, 2014; Christopher, et al., 2007). 마지막으로 죽음태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물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중매개효과 검증결과, '죽음회피 → 물질주의 → 의미추구성향 → 행복', '죽음수용 → 물질주의 → 의미추구성향 → 행복' 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죽음태도와 행복과의 관계를 물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죽음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물질주의 가치관이 높고, 이는 의미를 추구하려는 경향성을 떨어뜨리면서 행복을 저해한다. 하지만 죽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물질에 적은 가치를 부여하고, 이는 의미를 추구하려는 경향성을 높이면서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경로가 밝혀진 결과는 중년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죽음태도의 역할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개인의 행복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죽음수용은 중요하다. 죽음수용은 웰다잉의 시작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교육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죽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물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이 죽음태도와 행복과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복에 기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물질주의를 낮추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동기를 높이는 것이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는 죽음에 대한 성숙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비해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지적되는 물질주의를 완화시키고,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학적 변인으로서 죽음에 대한 수용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중년을 대상으로 489명이라는 비교적 많은 연구대상자들이 참가하였지만, 남, 녀의 비율이 약 3:7로 여성의 표본 수가 2배 이상 많았다. 죽음태도와 물질주의에 성차가 존재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성별을 구별하거나 성비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죽음태도는 연령차도 큰 것으로 보고되는 바, 중년이 아닌 청년기나 노년기 등 다른 연령대의 죽음태도와 행복과의 관계를 확인해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Gesser, Wong, & Reker, 1988). 본 연구의 모형은 죽음태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나, 역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행복이 죽음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추후 연구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년들이 물질주의 가치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진정한 자기발견과 의미를 추구하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수용을 위한 개인적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개입과 교육이 풍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 해 본다.

## 참고문헌

- 강철원 (2016). 저성장시대 행복리포트. 한국일보, 2016.01.18.
- 김명숙 (2014). 행복과 성공적 노화 그리고 잘 죽기. 철학논총, 76, 275-293.
- 김원식 (2011). 사회비판의 두 유형과 공조 방안: 한국사회를 위한 종합적 사회비판 전략의 모색. 사회와 철학 논문집: 『사회와 철학』, 21.
- 김지현, 민경환 (2005). 청년 집단의 죽음 공포와 죽음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2), 11-36.
- 김창현 (2013). 삶과 죽음을 넘어서: 니체의 죽음학. 종교와 문화, 24(단일호), 169-197.
- 남희선, 이영호 (2014). 죽음 수용 수준에 따라 죽음 공포가 삶의 의미 지각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1), 263-283.
- 문수백 (2015).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문현공 (2016). 죽음 현저성(Mortality Salience)의 교육적 함의 -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死念)과 관련하여. 종교교육학연구, 51, 153-176.
- 박선영, 권석만 (2014). 삶의 의미와 주관적 안녕 및 우울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3), 549-571.
- 박지선, 최인철 (2002). 죽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훌륭한 시민으로 만드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75-89.

- 박진영, 최혜원, 서은국 (2012). 물질주의와 인간관계 경시의 심리적 원인: 낮은 일반적 신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1), 23-36.
- 변미경, 현혜진, 박선정, 최은영 (2017). 웰다잉 프로그램이 노인의 삶의 의미, 자기효능감 및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0).
- 배병렬 (2009).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서은국, 구재선, 이동귀, 정태연, 최인철 (2010). 특별 심포지엄: 한국인의 행복 및 정신건강 지수: 한국인의 행복 지수와 그 의미.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2010(단일호), 213-232.
- 오진탁 (2004). 죽음, 삶이 존재하는 방식. 서울: 청림 출판사.
- 오진탁 (2009). 죽음에 대하여. 환경과 생명, 61, 112-123.
- 오진탁 (2011). 우리 사회에 죽음이해가 크게 부족하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14(3), 131-137.
- 유지혜 (2017). 한국판 물질주의 척도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아, 송리라 (2014). 소득, 물질주의와 행복의 관계. 한국연구학, 37(4), 89-114.
- 이병찬 (2011). 웰다잉 실천으로 바라본 자아성찰과 사생체험. 서울: 효사랑.
- 이운영 (2008). Wong의 죽음태도 척도의 타당화.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2002). 노인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 내외통제성 및 대처방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이가옥 (2004).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 한국노년학, 24, 193-215.
- 이창수 (2017). [바뀌어야 '산다'] OECD 자살률 또 1위... 일본은 3계단 하락. 세계일보, 2017.07.16.
- 임송자, 송선희 (2012). 죽음에 대한 태도가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5), 243-255.
- 김윤태 (2011). 소득 증가세는 세계 최고, 삶만족감은 OECD 최저. 조선일보, 2011.01.01.
- 장휘숙 (2008). 인생과정 조망과 성인기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99-113.
- 장휘숙, 최영임 (2008). 죽음공포와 죽음수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2), 59-76.
- 조명한,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정미영 (2010). 삶의 의미발견과정에 관한 연구: 의미추구, 의미발견, 사생관 및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정운경 (2015). 웰다잉 프로그램과 노인의 삶의 질, 죽음불안과 자아 통합감의 관계연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영미 (2013). 중년여성의 죽음에 대한 인식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 학술대회, 121.
- 정영숙, 이화진 (2014). 중년기의 성숙한 노화와 죽음 태도 및 죽음 대처 유능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2), 131-154.
- 조원규 (2013). 웰다잉과 행복성찰. 서울: 책과나무.
- 진영선, 김영경 (2011). 기억 향상 요소를 강화한 노인 집단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노년학, 31(2), 401-417.
- 차미영 (2006). 웰다잉을 위한 죽음의 이해. 서울: 상상커뮤니케이션.
- 한미정 (2002).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자아존

- 중감에 따른 죽음불안의 발달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179-198.
- 홍경화 (2014). The high price of Korean materialism on chronic and momentary happiness.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기원, 김연우 (2015). 물질주의에 관련된 심리적 변인의 실험적 탐색. 로고스경영연구, 13(1), 1-18.
- 황재원, 김계현 (2009). 대학생의 행복추구성향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10(1), 57-71.
- Arndt, J., Solomon, S., Kasser, T., & Sheldon, K. M. (2004). The urge to splurge: A terror management account of materialism and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4*(3), 198-212.
- Belk, R. W. (1984). Three scales to measure constructs related to materialism: Reliability, validity, and relationships to measures of happines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1*, 291-297.
- Belk, R. W. (1985). Materialism: Trait aspects of living the material world.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 265-280.
- Bollen, K. A. (1989). A new incremental fit index for general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7*(3), 303-316.
- Carstensen, L. L. (1998). A life-span approach to social motivation. In J. Heckhausen & C. Dweck (Eds.),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across the life-spa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ristopher, A. N., Drummond, K., Jones, J. R., Marek, P., & Therriault, K. M. (2006). Beliefs about one's own death, personal insecurity, and material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3), 441-451.
- Christopher, A. N., Lasane, T. P., Troisi, J. D., & Park, L. E. (2007). Materialism, Defensive and Assertive Self-Presentational Tactic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6*(10), 1145-1162.
- Collett, L. J., & Lester, D. (1969). The fear of death and the fear of dying. *Journal of Psychology, 72*, 179-181.
- Crumbaugh, J. C., Wood, W. M., & Wood, W. C. (1980). *Logotherapy: New help for problem drinkers*. Burnham Incorporated Pub.
- Csikszentmihalyi, M. (1975). Play and intrinsic rewards.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15*(3), 41-63.
- Csikszentmihalyi, M., & Rochberg-Halton, E. (1978). Reflections on materialism. *The university of Chicago Magazine, 70*(3). 6-15.
- Dickens, C. (2017). 크리스마스 캐럴. (이은정 역). 서울: 펭귄클래식코리아(원전은 1843에 출판).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iener, E. & Oishi, S. (2000). Money and happiness: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In E. Diener & E.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p.185-218), Cambridge Ma: MIT Press.
- Diener, E., Suh, E. M., Kim-Prieto, C.,

- Biswas-Diener, R. & Tay, L. S. (2010). Unhappiness in South Korea: Why it is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한국심리학회연차학술대회 논문집*, 1-23.
- Dittmar, H., Bond, R., Hurst, M., & Kasser, T.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5), 879-924.
- Feifel, H. (1990). Psychology and death. *American Psychologist*, 45, 537-543.
- Frankl, Viktor E. (1959). The Spiritual Dimension in Existential Analysis and Logotherapy.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15(2), 157-165.
- Fry, P. S. (2001). Predictor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perspectives,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following spouse loss: An 18-month follow-up study of widows and widowers. *The Gerontologist*, 41, 787-798.
- Gesser, G., Wong, P. T., & Reker, G. T. (1988). Death attitudes across the life-spa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eath Attitude Profile (DAP).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18(2), 113-128.
- Gobodo-Madikizela, P. (2002). Remorse, forgiveness, and re-humanization: Stories from South Africa.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42(1), 7-32.
- Greenberg, J., Pyszczynski, T., & Solomon, S. (1986).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 need for self-esteem: A terror management theory. *Public self and private self*, 189, 189-212.
- Henderson, L. W., Knight, T. & Richardson, B. (2014). The Hedonic and Eudaimonic Validity of the Orientations to Happiness Sca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5(3), 1087-1099.
- Hoelter, J. W. (1979). Multidimensional treatment of fear of dea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996-999.
- Heidegger, M. (2008). 존재와 시간: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 (이기상 역). 서울: 살림(원전은 1927에 출판).
- Hirschberger, G., Ein-Dor, T., & Almakias, S. (2008). The self-protective altruist: Terror management and the ambivalent nature of prosocial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5), 666-678.
- Kasser, T., & Ryan, R. (1993).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ion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410-422.
- Kasser, T., & Ryan, R.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280-287.
- Kasser, T., & Ryan, R. (2001).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Optimal functioning and the relative attainment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In P. Schmuck & K. M. Sheldon (Eds.), *Life goals and well-being: Towards a positive psychology of human striving* (pp.116-131). Ashland, OH: Hogrefe & Huber.
- Kashdan, T. B., & Breen, W. E. (2007). Materialism and diminished well-being: Experiential avoidance as a mediating mechanism.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6(5), 521-539.
- Kübler-Ross, E. (1997) *Death*. New York: Simon & Schuster.

- Kübler-Ross, E. (1969). *On death and dying*. New York: Macmillan.
- Klug, L., & Sinha, A. (1987). Death acceptance: A two-component formulation and scale. *Omega*, 18, 229-235.
- Levinson, D. J. (1986). A conception of adult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1(1), 3-13.
- Mandel, N., & Heine, S. J. (1999). Terror management and marketing: He who dies with the most toys wins. *ACR North American Advances*.
- Mandel, N., & Smeesters, D. (2008). The sweet escap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on consumption quantities for high-and low-self-esteem consumer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5(2), 309-323.
- Mick, D. G. (1996). Are Studies of Dark Side Variables Confounded by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The Case of Materialism.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3(2), 106-119.
- Miller, S. S. (2009). *Materialism and psychosocial maladjustment: What accounts for the relation?*. University of Oregon.
- Morgan, J., & Robinson, O. (2013). Intrinsic aspirations and personal meaning across adulthood: Conceptual interrelations and age/sex differ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49(5), 999-1010.
- Neuberger, J. (2004). *Dying well: a guide to enabling a good death*. Radcliffe.
- Peterson, C., Park, N., & Seligman, M. E. P. (2005). Orientation to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The full life versus the empty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6(1), 25-41.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Richins, M. L., & Dawson, S.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3), 303-316.
- Rindfleisch, A., Burroughs, J. E., & Wong, N. (2008). The safety of objects: Materialism, existential insecurity, and brand conne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6(1), 1-16.
- Ryff, C. D., & Singer, B. (1998). The contours of positive human health. *Psychological inquiry*, 9(1), 1-28.
- Seligman, M. E. P., Rashid, T., & Parks, A. C. (2006). Positive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61(8), 774-788.
- Sheldon, K. M., & Kasser, T. (1995). Coherence and congruence: Two aspects of personality integ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31-543.
- Solberg, E. G., Diener, E., & Robinson, M. D. (2004). Why are materialists less satisfied?. In T. Kasser & A. D. Kanner (Eds.), *Psychology and consumer culture* (pp.29-48). Washington, DC: APA.
- Spilka, B., Minton, B., Sizemore, D., & Stout, L. (1977). Death and personal faith: A psychometric investigat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69-178.
- Tsang, J., Carpnetter, T. P., Robert, M. B. Carlisle, R. D. (2014). Why are materialists less happy? The role of gratitude and need

-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life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4, 62-66.
- Wong, P. T. (2008). Meaning management theory and death acceptance. In Adrian Tomer, Grafton. T. Eliason, Paul T. P. Wong (Eds), *Existential and spiritual issues in death attitudes* (pp.65-87).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Wong, N. Y, & Ahuvia, A. C. (1998). Personal taste and family face: luxury consumption in Confucian and Western societies. *Psychol Mark*, 15(5), 423-441.
- Wong, P. T., Reker, G. T., & Gesser, G. (1994).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attitudes toward death.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121.
- Wong, P. T., & Tomer, A. (2011). *Beyond terror and denial: The positive psychology of death acceptance*. Taylor & Francis.
- Vail. K. E, Juhl. J., Arndt. J., Vess. M., Routledge, C., & Bastiaan T. R. (2012). When death is good for life: Considering the positive trajectories of terror manag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6(4), 303-329.
- Vail III, Juhl, Arndt, Vess, Routledge, & Rutjens, (2012). When Death is Good for Life: Considering the Positive Trajectories of Terror Manag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6(4), 303-329.
- Vohs, K. D., Mead, N. L., & Goode, M. R. (2008). Merely activating the concept of money changes personal and interpersonal behavior.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7(3), 208-212.
- 1차원고접수 : 2018. 01. 15.  
수정원고접수 : 2018. 02. 21.  
최종게재결정 : 2018. 03. 05.

## The Relation between Death attitude and Happiness: The Mediating Effects of Materialism and Orientation to Meaning for Middle-aged adults

Hwa Ji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ung Sook Chong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d evaluate the model concerning relations among death attitude (death avoidance, death acceptance), happiness (subjective well-being), and the mediators of materialism and orientation to meaning. Data were collected from 489 middle-aged adults.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the hypothesized model fit the data well. Death avoidance and death acceptance did not directly affect happiness, but they were indirectly affected by materialism and orientation to meaning.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eath acceptance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lowering the value of materialism and increasing the orientation to pursue meaning, leading to the happiness of middle-aged adults.

*Key words* : *Death attitude, materialism, orientation to meaning, happiness*